

# 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임시 개방

청동4번길 소·대형 화물차 주차면 341면 갖춰

밤샘 불법주차 근절 등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나주시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9월 중 정식 개장에 앞서 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1일부터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135, 시비 51)이 투입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청동4번길 부지 4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8월 한 달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하고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시 개방 기간 도심권과 도로변 등 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 밤샘 무

단 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영차고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운수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솔선수범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성군, 전문가 도움 받아 고품질 쌀 재배

벼 재배농가 종합 컨설팅

장성군이 최근 벼 재배농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영농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토론과 영농 전문가들의 컨설팅 진행으로 참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종합 컨설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주관하는 ‘2019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의 일환이다.

컨설팅 트로는 국립식량과학원 정종섭 과장과 조준현 박사, 국립농업과학원의 권오도 연구원이 나섰으며, 현재 군에서 품종증 배출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50여 명이 참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종합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수성에 맞춰 현장 실용화 영농기술들이 농가에 잘 접목될 수 있었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유통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과 PLSC(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에 대비한 병해충 방제 기술 등에 대한 토론과 맞춤형 제안이 이어졌다.

또 현지 포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진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컨설팅도 병행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장윤선 씨(황룡면)는 “벼 농사를 지으면서 맞닥뜨렸던 어려움들을 짐짓토론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형 컨설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종합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수성에 맞춰 현장 실용화 영농기술들이 농가에 잘 접목될 수 있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유통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한 농작물 홍보 교육 ‘호응’

SNS 통해 직접 만든 카드뉴스·동영상 등 홍보



화순군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을 홍보를 위한 ‘농업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운영했다.

군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농작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위탁해

전문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은 숙련된 강사들과 알찬 커리큘럼으로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농업인 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사진에 대한 구도, 앵글, 조명 활용 방법 등 전문적인 활용 기법을 교육받았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교

육은 진행됐다.

특히, 사진 활용을 실습할 때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복숭아, 옥수수, 가지 등의 농작물로 활용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생들은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홍보물을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배와 출하 소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여한 춘양면 김재봉 씨(69)는 “평소 복숭아와 포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번에 배운 활용과 홍보 방법을 활용해 직접 홍보해보겠다”고 밝혔다.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제작하고 홍보까지 가능한 휴대용 미디어”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농업인의 필수 능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광군, 하이트진로와 라벨 광고 업무협약 체결



상사회축제 홍보 신호탄

영광군은 지난 7월 30일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하이트진로 전남권역 성동우 본

부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영광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의 주류(하이트맥주, 참이슬소주) 라벨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광군과 하이트진로는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상사회축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군 단위 축제나

대형 행사 개최 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19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이자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우수한 축제로 매년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많은 발길이 달고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찾아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담양군, ‘건강한 여름나기’ 폭염 대책 추진



많은 담양읍 시가지 일원 주요도로변에 살수차를 투입하여 도로 복사열을 식히고 열설험과 완화,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로 대기질 개선, 열대야로 인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대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무녀위쉼터(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폭염시 국민행동 요령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